

36.5

토닥토닥, 누구에게나 상담이 필요하다





마음에 위안이 필요할 때는 토닥토닥

토닥토닥협동조합은

몸이 아플 때 병원을 찾는 것처럼,

마음이 아플 때 심리상담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만약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토닥토닥협동조합을 찾을 것을 권한다.

편안한 공간에서의 상담은 우리 마음의

응어리를 조금씩 풀어줄 것이다.



“OK!”

새끼손가락을 펴봅니다.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미안함을 표현할 때

환한 웃음과 함께 턱 끝을 새끼손가락으로 가볍게 두 번 톡톡 두드려주세요.

당신의 너그러운 마음이 한 사람의 삶에 큰 용기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 사회적기업 <열린책장>과 함께 배우는 수어교실은 p4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lways with you 토닥토닥협동조합

토닥토닥, 조금씩 열리는 마음의 문

Issue in 지방소멸의 시대!? 지방 파수꾼 자처한 사회적기업

- 18 ◦ **Column** 지방소멸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_전 성미산마을 대표 위성남
- 20 ◦ **人Taboo**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마을의 인문학적 자세 _사단법인 인디053
- 24 ◦ **Zoom in** 지방소멸, 연대가 답이다 _커뮤니티와 경제 김재경 소장
- 26 ◦ **Global report** 상생협력으로 푸는 지방소멸

Vision up 사회적기업의 좋은 친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30 ◦ **Cheer up** 꼭 찍어 맛보는 달콤한 나의 도시, 어반비즈서울
- 34 ◦ **K씨의 하루** 여름, 내 피부를 지켜줘!
- 38 ◦ **Great choice** 커피로 선택해주세요. 착한 일은 우리가 할게요
- 42 ◦ **News** 2018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外
- 46 ◦ **36.5 Hot line**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하고 싶은 말
- 48 ◦ **배워봅시다** 작은 손짓이 전하는 큰 감동
- 50 ◦ **독자 Box**

발행일 2018년 6월 30일

발행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329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한화생명빌딩 6~8층

T. 031-697-7700 F. 031-697-7853 H. www.socialenterprise.or.kr

기획·취재·디자인 ㈜워크디자인 T. 02-332-7961~2 **인쇄** ㈜연각P&D T. 02-2285-3388

본지에 게재된 내용의 일부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토닥토닥,

조금씩 열리는 마음의 문

토.닥.토.닥. 내 본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더디고 조심스럽지만 진심어린 손길에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어간다. 어느 별 좋은 오후의 시간들처럼 외롭고 상처 입은 마음을 따뜻하게 다독여주는 토닥토닥협동조합. 덕분에 일상에 대한 희망을, 세상에 대한 용기를 품을 수 있게 됐다. 글 | 기사윤, 사진 | 박성희



누군가에게 있는 마음의 집

바쁘게 흘러가는 시간 속 수많은 사람들. 걸으려는 옷는 모습이지만 저마다 적어도 한 가지쯤의 어려움과 고민을 짊어지고 세상을 살아간다. '괜찮아질 거야', '잘 될 거야'라고 스스로를 다독일 때도 있지만 부정적 감정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는다.

내 안의 고독과 우울

부끄러움, 분노, 슬픔, 외로움... 하루에도 수십 번 마주하게 되는 내 안의 부정적 생각들. 이는 우리가 사람이라서 느끼는 자연스러운 마음이지만, 애써 모른 척 할 때가 많다. 하지만 그런 순간이 계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는 사실.



객관적으로 관계를 살펴볼 것

우리가 살면서 겪는 대부분의 감정들은 관계에서 비롯되기 마련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한 발 물러나 객관적인 시각으로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또한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누군가에게 되돌려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감정에 집중해 볼 것

이제 차분하게 자신을 조망해볼 차례. 최근 나를 좌우하는 일은 무엇인지, 과거 트라우마는 무엇인지, 스스로 해결이 가능한지를 충분히 성찰해본다. 내 안에 미해결된 감정과 풀리지 않는 고민과 상처를 때로는 정면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나의 긍정성을 깨울 것

나를 더듬다 보면 내 안의 여러 가지 긍정성을 찾게 된다. 그때, 그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했던 나, 잊고 지냈던 나를 찾기도 하며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세울 수도 있다.



한 권의 책에서, 한 편의 음악에서

관계를 되짚고, 내 안의 긍정성을 깨우는 것. 단단한 나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지만 모두에게 서툰 일이기도 하다. 혼자 힘 들다면 한 권에 책에서, 한 편의 음악에서 그 갈피를 찾을지도 모른다.



삶의 오아시스, 토닥토닥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갈피가 잡히지 않는다면 토닥토닥이 '오아시스'가 되어줄 터. 전문 상담사들의 진심어린 공감과 위로는 어느새 우리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준다. 카페라는 편안한 공간과 일반 상담센터 대비 절반가량 낮은 상담료는 토닥토닥의 문턱을 넘기 쉽게 해준다.



마음 발을 돌보는 상담사들

방문자 한 명, 한 명이 토닥토닥의 문턱을 넘을 때, 한 사람의 인생이 다가온다는 마음가짐으로 내담자들의 마음 발을 돌보겠다는 토닥토닥 상담사들. 내담자들의 비밀을 평생 지키며, 삶에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든든한 지원군이다.

사람들의 마음 받을 돌보는 공간

토닥토닥협동조합

‘토닥토닥협동조합(이하 토닥토닥)’은 ‘누구에게나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2011년 설립된 심리상담기관으로 2015년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다. 카페라는 편안한 공간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 햇수로 벌써 7년. 토닥토닥은 앞으로도 더욱 많은 사람들이 토닥토닥이라는 공간에서 삶에 대한 희망과 세상을 향한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1

- 1 내담자의 비밀보장 및 상담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상담실.
- 2 개인상담뿐 아니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집단 상담프로그램 운영.
- 3 올 하반기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주가 예정된 토닥토닥 반월당점.

심리상담의 문턱을 낮춘 토닥토닥

토닥토닥은 대구에서 꽤 유명한 곳이다. 네 명의 전문 상담사들이 상주하며 심리상담을 이어가는 ‘반월당점’. ‘도심 속 힐링’을 표방하며 편안한 음악과 인테리어로 눈길을 끄는 ‘만촌점’, ‘영남대점’. 세 곳 모두 대구의 ‘핫 플레이스’로 손꼽히면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그 중 유독 사람이 많은 곳은 반월당 메트로센터에 위치한 반월당점이다. 지하상가 특성상 탁 트인 전망도, 넓은 공간도 없지만 30분당 1~2명 꼴의 발걸음이 이어진다. 대부분 심리상담을 받기 위한 사람들로 미리 상담을 예약한 사람들이다. “처음 문을 열었을 때부터 상담의뢰가 많았습니다. 한편으로 조금은 의아했죠. 심리상담이 보편화된 것도 아니고, 특수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받는 심리치료라는 생각이 강했잖아요. 이는 그만큼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 없었다는 방증이기도 하겠죠.”

편안한 공간과 저렴한 비용으로 심리상담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이영희 대표의 전략이 들어맞은 셈. 이영희 대표는 심리상담이 치료 목적뿐 아니라 예방 차원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상을 살면서 마음 아프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며, 이 감정이 크게 증폭되기 전에 공감·위로를 통해 자아성장의 발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방면의 활동으로 심리상담 지평을 확대

내담자의 심리상담뿐 아니라, 토닥토닥은 지역사회 여러 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라임오렌지나무’. 교육지원청과의 협약을 맺은 프로그램으로 영화·사진·미술·푸드를 매개로 청소년들로 하여금 건전한 자아상을 형성하고 타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 밖에도 일반 시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프로그램 전후 한껏 달라진 청소년들을 봤을 때 가슴 뿌듯하죠. 학업을 중단하려던 친구가 있었는데, 자신도 꿈이 생겼으며 학교로 돌아간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다른 친구들한테도 긍정적 에너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외프로그램의 총괄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권엄지 팀장은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이, 비슷했던 상황의 친구를 도울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싶다”고 말한다. 앞으로 토닥토닥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다는 권엄지 팀장. 그 까닭은 자신의 진심으로 누군가가 변화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보람 덕분일 것이다.



2



3



- 4 상담실 밖은 내부가 잘 보이지 않도록 블라인드 처리되었다.
- 5 상담 후 내담자들이 토닥토닥에 전하는 말 한 마디.

일상의 ‘쉽’이 되어 주는 토닥토닥

토닥토닥은 상담부 · 카페부 · 대외부 · 홍보디자인부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총 11명의 구성원이 토닥토닥을 이루고 있다. 상담부의 상담사들은 모두들 석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 상담사들로 보통 하루에 4~5명 정도의 내담자를 만난다. 한 시간여 누군가의 이야기에 오롯이 집중하고, 이해하고, 조금은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힘이 안 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담할 때마다 조금씩 변화하는 내담자를 보면서, 내가 더욱 깊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죠.”

자기계발은 필수. 손혜진 상담사는 “다양한 상담사례를 공부하며 인간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 노력한다”고 말한다. 정다운 상담사는 “상담사도 다른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는다. 또 취미활동 등으로 기분을 전환한다”고 덧붙인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내담자 한 명 한 명한테 소중한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토닥토닥 상담사들. 다시, 내담자들이 토닥토닥을 찾았을 때 반겨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항상 이 자리에 머물러 있겠다.

“항상 지금처럼 이 자리에” 토닥토닥의 얼굴들

대표 이영희 상담사

한동대학교 상담심리학 석사졸업

“정신병원 인턴 실습 때, 정신병원에 계신 분들이 원래 이상했던 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인생에 어떤 고비에 도움을 받았더라면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었을 테죠. 문제다 싶었죠. 토닥토닥을 기획한 이유입니다. 비용에 대한 부담,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싶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소중한 일생, 진심을 다해 마음 받을 돌보는 상담사로 살겠습니다.”

상담실장 김향미 상담사

한동대학교 상담심리학 석사졸업

“사람의 생김새가 모두 다르듯 내담자 분들의 삶이 모두 고유하고 특별합니다. 내담자 모든 분들이 자신만의 희로 애락에서 고군분투 나아가고 계시죠. 그 과정에서 상담은 인생의 안내자 혹은 안전지대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담자 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상처로부터 치유될 때 상담사로서 뿌듯합니다.”

손혜진 상담사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상담전공 박사수료

“토닥토닥과 함께한 지는 5개월 차입니다. 홈페이지의 ‘마음 받을 돌보는 상담사’라는 문구가 인상 깊어 토닥토닥의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렸어요. 앞으로도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자리에서 오래 일을 할 수 있는 토닥토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환경과 시스템을 더욱 갖춰나기 바라며, 그렇게 되면 내담자들의 일생을 함께하는 토닥토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다운 상담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교육 석사졸업

“사람들은 내가 심리적으로 취약하다,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인간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불안 · 우울 등의 감정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투영해주시고, 읽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많이 힘들었구나. 슬프구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토닥토닥이 함께하겠습니다.”

권엄지 팀장

대구카톨릭대학교 상담심리학 석사 재학중

“2013년 아르바이트를 통해 토닥토닥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지금은 ‘라임오렌지나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게 자연스레 심리 상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현재는 대학원을 다니면서 심리 상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을 접목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싶습니다.”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대구에는 토닥토닥 카페가 세 군데 있다. 심리상담을 받지 않더라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음료를 즐길 수 있다. 하지만 토닥토닥
의 진가를 제대로 느껴보고 싶다면 꼭 심리상담을 받아볼 것.
상담사들과 함께라면 내 안의 나를 마주하는 게 두렵지 않을 것이다.

1 반월당점

토닥토닥 1호점으로 내담자의 비밀보장
및 상담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상담실이 인상적. 총 4개의 방으로
구성됐으며, 대기 공간에서는 편하게
앉아 커피 등 음료를 즐길 수 있다.
올 하반기 좀 더 넓은 공간으로 확장·이전해
후배 상담사 양성 등 상담연구소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160
(메트로프라자 내)
- 053-255-1402



2 만촌점

SK 행복나눔재단의 투자를 받아 설립된 곳.
이는 토닥토닥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에
대한 인정으로, 예쁜 실내외관 덕분에
지역주민으로부터 인기가 높다.
반월당점·영남대점과 마찬가지로 근무하는
바리스타들 또한 상담에 대한 이해가 높다.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랑로 34길 93
2층
- 053-945-1402



3 영남대점

1호점의 인기를 발판삼아 확장된 곳.
반월당점에서는 밀도 높은 개인상담이
주로 이뤄지는 반면, 영남대점에서는
전문상담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에피타이저 상담'이 진행되며,
집단상담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청운로 85
서경오피스텔 1층
- 053-817-1403



토닥토닥♥ 마음돌봄 프로그램

♥ I-Program

상담사와 1대 1로 자기성장(대인관계,
자존감), 임상(우울, 강박, 불안, 중독 등
의 심리적 곤란), 직장 및 학업 스트레
스, 관계 고민 등을 다루는 상담이다. 자
신을 전신거울에 비춰보듯 평소 외면해
왔던 모습까지 솔직하게 바라볼 수 있
도록 하는 격려, 지지의 과정으로 시작
한다. 나아가 자신의 새로운 면과 긍정
적인 면에 초점을 맞춰 성장과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비용 : 1SET(5회) / 20만 원

♥ WITH-Program

부부, 자녀, 연인, 친구들이 함께하는 상
담으로 건강한 가족체계 세우기, 원활
한 의사소통, 부모교육, 서로의 성격 이
해하기 등의 내용이 진행된다. 문제가
있는 관계만이 아니라 더욱 성숙하고
발전된 관계를 위해 노력하려는 모든
이에게 적합한 상담이다. 음악치료, 미
술치료, 역할극, 의사소통법 등 흥미롭
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비용 : 1SET(5회) / 22만5,000원

♥ DREAM-Program

전문적인 진로·취업 컨설팅으로 청소년
및 아동, 대학생을 대상으로 적성 파악,
진로 설계부터 공모전, 자기소개서, 기
업 분석 등 취업 대비 멘토링까지 펼친
다. 2011년 고용노동부 멘토링 우수사
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비용 : 1SET(5회) / 22만5,000원

♥ GROUP-Program

소그룹이나 동호회, 직장인들이 함께
어울려 소통하고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구성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면서 관계를 증
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용 : 횟수 및 상담료 협의 후 결정

사람 텅 빈 지방 될까 희망 채우는 사회적기업

지방이 위기다. 젊은 층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옮겨가면서 지방은 극심한 고령화를 겪고 있다. 저출산 등 인구 감소가 더해지며 지방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지방에서 청년, 여성, 고령층 등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려 노력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방 재생과 공동체 활성화, 지방의 또 다른 희망이 되고 있다.

CHECK
Info

지방 파수꾼 자처한 사회적기업

2017 지역별 인구

서울 977.6만 명
인천 292.3만 명
경기 1280.9만 명

* 수도권에 인구의 약 50% 밀집

2017 지역별 인구밀도

평균 513명
서울 16,154명
전남 146명
경북 141명
강원 90명

* 수도권 인구밀도는 2,152명으로
강원의 24배(서울은 강원의 180배)

2017 소멸위험 지수

경북 의성 .. 0.158 소멸고위험
전남 고흥 .. 0.167 소멸고위험
경북 군위 .. 0.174 소멸고위험
경남 합천 .. 0.174 소멸고위험
전남 0.48 소멸위험
부산 0.86 소멸주의
대구 0.92 소멸주의
대한민국 0.95 소멸주의

* 소멸위험지수 : 20~39세 가임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로
나눈 지표
* 기초자치단체 85곳 중 7곳은 소멸
위험지수가 0.2 미만의 고위험지역.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전남이 최초로
소멸위험단계 진입.

지방 맞춤형 사업으로

- 전통, 문화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사업모델 개발, 일자리 창출
- 교통, 의료, 문화, 교육, 돌봄 등 지방에 부족한 다양한 사회 서비스 인프라 형성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 내부자원 순환, 재이용 등 지방경제 선순환에 기여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업 확대 전망

기업 소재지의 수도권(서울) 집중도

- 일반기업 : 52.6% (21.1%)
- 사회적기업 : 33.6% (14.6%)

* 2016년 기준
<자료 : 통계청, 한국고용정보원>

ISSUE
Info

지방소멸의 시대!?

지방소멸,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지방에서는 먹고살 게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 대도시로 몰리는 거 아니겠느냐. 농촌지역에 마을기업을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답이지 않겠느냐. 절반은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전부는 아닙니다.

몇 년 전 어느 날 홍대앞에서 약속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성이 전철역에서부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약 5분이 못되어서 홍대앞 골목길로 접어들더군요. 그 여성은 주섬주섬 담배를 꺼냈습니다.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워 문 것이지요. 홍대앞에서는 여성 흡연에 대해 아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사회학에서는 이것을 '장소성(sense of place)'으로 개념화합니다. 길거리 흡연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도시에서는 그나마 여성에 대한 사회적 간섭행위가 적습니다. 홍대앞이 아닌 나머지 지역은 어떨까요? 대도시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여성의 행동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간섭적 시각이 존재합니다. 여성은 대도시에서 숨통을 조금 트고 삽니다. 즉 여성을 비하하는 쓸데없는 간섭과 시선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롭습니다.

#1 사회적 간섭행위

글 위성남
마포지역활동가,
전 성미산마을 대표

2001년부터 성미산마을과 접속했다. 아이의 육아를 위해 공동육아협동조합인 '참나무어린이집'을 창립했고, 초대이사장을 했다. 2004년 대안학교인 '성미산학교'를 추진했고, 준비위원회 사무국장 일을 했다. 2009년에는 성미산마을의 대표단체인 (사)사람과마을 운영위원장 직을 4년 동안 맡았다. 2014년에는 마포구마을생태계 조성사업단의 단장, 2017년에는 마포구시민협력플랫폼의 총괄책임자 역할을 수행했다.

#2 다문화성적

일반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여건이 마땅치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를 사적인 영역으로 규정하고 그 책임을 오롯이 개인으로 돌리면서,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지극히 공적인 영역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면서도 국가와 사회는 공적인 책임을 다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조와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저출산 현상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소멸은 비단 중소도시 이하 지역에 해당하는 현상은 아닙니다. 대도시를 포함하여 한국 사회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여성을 대하는 사회적 태도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소수자를 대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혼이주민,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인종적 차별이 매우 심합니다. 따라서 문화적 다양성이 중요합니다. 나와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 간섭하지 말고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합니다.

#3 커뮤니티의 활성화

지역이 활성화하려면 일단 사람이 머물러야 합니다. 끼리끼리 성향에 맞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상관없습니다. 뭔가를 나누고, 교류하면서 모임을 꾸려나갑니다. 정보를 나누고, 물건을 나누고, 아이디어를 나누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여서 뭔가 활동을 하는 것을 커뮤니티라고 하고, 커뮤니티는 그들 당사자들의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문화'는 당사자 세대와 언제나 함께 하며 당사자를 어떤 장소에 머무르게 합니다. 또한 사람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은 그들의 문화가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민(도시에서 농촌으로 온 사람, 해외에서 온 사람 포함)과 40대 이하의 젊은이들의 문화를 재창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행정 지원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도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은 각 세대별 당사자들의 숨통을 트이게 합니다. 지극히 사소한 일이지만서도 어쨌든 젊은 여성이 흡연을 하는 데 일단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4 농촌지역의 활성화

농촌(또는 도농복합도시 포함)지역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한 부를 지역 안에서 최대한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여 '로컬노믹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도시의 부를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에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뭔가의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 도시민들에게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관을 판매하는 여행상품일 수도 있고, 경험을 판매하는 체험상품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산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시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역에 사는 주민이 누가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마침 외부에서 이주한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시골은 텃세가 심하다고요? 텃세 따위 부리다가 '마을소멸' 당합니다.

#5 사회적경제 기반 커뮤니티

지방소멸이 발생하는 이유는 해당 지방에서 오랫동안 살아갈 환경이 아니기에 도시로 탈출하는 것입니다. 도시로 탈출하는 사람들을 비난할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기에 매력적이지 못한 그 지방의 풍토가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마을을 기반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할 사람이 없는데, 행정에서는 돈을 지원합니다. 과거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레가지고서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지역의 이러저러한 사람들의 모임,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게 더 확실합니다.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지속가능한 뭔가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게 사회적기업이고 마을기업이며, 협동조합이고 비영리법인이 될 것입니다.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는 같은 활동을 서로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때 부르는 이름입니다.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마을의 인문학적 자세

사단법인 인디053

‘지방소멸’이라는 문제를 인문학으로 모색하는 사회적기업이 있다. ‘칠곡인문학마을’을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 낸 사단법인 인디053 (이하 인디053)이다. 이들은 문학·역사·철학 중심의 전통적인 접근 대신, 마을 내부에서 인문학적 자산을 찾는 데 눈을 돌렸다. 그리고 이 과정에 도시 청년은 물론 다양한 계층의 주민의 참여와 교류를 이끌어냈다. 글 | 정보리, 사진 | 박성희

ISSUE IN ○ TABOO
사회적기업 매거진 36.5



인문학

1 칠곡인문학마을 프로그램을 육성하는
인디053 이창원 대표(맨 왼쪽)와 경북본부
직원들.

마을의 유·무형 자산을 발굴하는 인디053

‘2018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총괄 운영하며 지역의 대표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인디053. 이 이름은 독립문화를 뜻하는 ‘인디’와 대구의 지역번호 ‘053’을 의미한다. 박람회 준비로 분주한 대구본사를 대신해 경북본부가 있는 경북 칠곡군 왜관읍을 찾았다. 이곳은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17 지역문화브랜드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칠곡인문학마을’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본부다. “마을에 사는 개인의 다양한 역사, 마을의 이야기 등 지역이 가진 인문자원을 발굴, 콘텐츠로 만들어 공동체를 통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생활예술인을 발굴하고 키워내는 과정에서 협동조합 등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인디053은 해당 프로그램의 전문연구기관으로 코디 활동을 수행하며 총 25개 인문학마을의 중심추 역할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 중 하나가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일깨워드리고 시를 짓게 한 것이다. 그렇게 엮어 낸 책이 <시가 뭐고?>라는 시집이다. 사투리나 오타자 등을 그대로 살려 출간한 이 책은 여러 매체에 보도되며 화제가 되었고 올해 무려 8쇄를 찍었다. 한편, 새끼 잘 꼬는 어르신은 방송 ‘세상에 이런 일이’에 출연해 스타가 되기도 했다. 마을의 생활예술인을 발굴하고, 어르신들의 연극단(보람할매연극단)을 만들고, 명맥이 끊긴 빨래터 노래를 채록해 극화하는 일.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마을의 유·무형 자산을 발굴하는 데에만 의의가 있는 건 아니다.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는 선순환 구조

이 과정에서 마을주민들이 서로에게 배움을 선사함으로써, 지역 커뮤니티가 자생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약 15만 명이 거주하는 칠곡군. 이창원 대표는 칠곡이 인문학마을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을 구미나 대구광역시 등 인근 도시에서 온 이주민이 많은 지리적 특색에서 찾는다.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하신 여성분들이 이곳에서 결혼하고 정착해서 살고 계세요. 그런데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이 되거든요. 아이들이 성장하면 배움이나 취업에 대한 수요가 생기죠. 그래서 2003년 설립된 학점은행제 대학으로 주민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때 대학에서 이분들을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사회복지인력으로 육성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농촌마을로 가서 한글선생님이 된 것이에요. 저는 이를 인문학마을의 태동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2013년 9개 마을로 칠곡인문학마을만들기가 시작됩니다.”

현재 25개 인문학마을 중 9개가 아파트마을이다. 농촌 어르신들이 아파트마을에서 요리를 배우고, 농산물을 팔기도 한다. 더불어 마을주민들은 협동조합을 만들며 ‘장난감도서관’ 등 공공영역 사업을 직접 유치하기에 이른다. 이 수익은 오롯이 지역 커뮤니티를 위해 쓰이며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일조하고 있다.



- 2 인디053 경북본부에서는 문화예술커뮤니티 공간 인문다방. 칠곡군의 중심 왜관역 인근에 위치해 인문학마을의 거점 역할을 한다.
- 3 마을마다 각기 다른 인문학자산을 발굴하는 인문학마을 프로그램.
- 4 '전국대학생인문학활동' 관련 회의를 진행 중이다.
- 5 한글을 깨우친 어르신들이 직접 지은 시가 수록된 인문다방의 유리문.

청년들과 함께하는 칠곡인문학마을

인디053은 인문학마을 프로그램을 고령군에 수출하기에 이른다. 일종의 인큐베 이팅을 하는 것이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마을문화활동가들이 합니다. 저희 는 칠곡 마을주민들의 활동을 컨설팅했고, 이를 통해 마을에 협동조합이 생겼습 니다. 그리고 이 협동조합이 고령으로 가서 마을문화 조성을 돕는 것이죠.” 이처럼 두드러지는 성과를 보이는 칠곡인문학마을만들기. 이창원 대표는 매우 우연한 계기로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칠곡의 이장님 한 분이 마 을벽화를 의뢰하면서 시작된 청년들의 농촌활동이 마을과 칠곡군에 큰 인상을 남긴 것이다.

“마을에 청년들이 오니까 매일이 잔치였어요. 밥도 같이 먹고 저녁에 어르신들 과 대학생들이 같이 어울리고. 알고 보니 당시 군청에서 칠곡인문학마을만들기 사업을 준비하던 상황이었죠. 저는 그걸 모르고 간 것인데 당시 활동이 칠곡군이 추구하는 가치와 맞아 떨어진 것이죠.”

대학생들의 농촌활동은 이후 '전국대학생인문학활동'으로 자리 잡았고, 매년 여 름 대학생 100명을 5개 마을로 나누어 보내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만들어내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6회째를 맞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인디053은 유능 한 대학생들을 문화기획자로 직접 채용하였다. 지역문화 융성은 물론 지역 내 고용 창출까지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다.



지방소멸, 지역 내 문화교류로 풀어내다

요즘, 아니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사회적 이슈인 지방소멸에 대한 이창원 대표 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칠곡군이 매우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곳 특색이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위치상 외지인들의 유입이 잦기 때문에 서로 벽을 치지 않죠. 폐쇄적인 사회는 필연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간적으로는 아파트마을과 전통마을이, 세대적으로는 어르신부터 중간세대와 어린이가 섞일 수 있도록, 만남의 장을 만 들어 낼 수 있는 좋은 토양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미션입니다. 인디053이 문 화단체잖아요. 저희는 이것을 문화적으로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관건이죠.”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외부의 것을 적극 받아 들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창원 대표. 그는 마지막으로 지방소멸의 시대, 지방에 서 사회적기업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한다.

“일단 버티세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비록 처음 싹을 틔우는 데까지의 과정은 굉장히 힘들지만, 일단 싹이 나오면 주변에서 물도 뿌려주고 거름도 주는 곳이 사회적경제 토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 특색이 참 ‘착하다’라고 생각 해요. 싹이 트기 전까지는 끓는점하고 똑같습니다. 보통 뜨뜻미지근할 때 포기하 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메마른 콘크리트에도 싹이 나지 않습니까.”



청년들과 함께하는
인문다방

인문다방

A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2번도로길 52 1층
T 054-920-0153
H www.indie053.net

인디053이 운영하는
문화예술커뮤니티 공간으로
지역주민들의 네트워크
허브이자 인디053의 홍보처
역할을 한다.

지방소멸, 연대가 답이다!

커뮤니티와 경제
김재경 소장

대구에 위치한 ‘커뮤니티와 경제’는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에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곳이다. 2011년 설립 이래 대구의 사회적경제조직 성장에 디딤돌 역할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터. 김재경 소장으로부터 대구 사회적경제의 현안과 지방소멸에 관한 이슈를 들었다. 글 | 기사윤, 사진 | 박성희



Q 커뮤니티와 경제와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현재 커뮤니티와 경제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마을기업지원센터·협동조합지원센터·사회적경제지원센터, 네 가지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센터는 각각의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각 센터 구성원의 대부분은 20~30대 청년들로, 사회적경제에 관한 신념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적극적 활동이 대구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성장에 일조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Q ‘2018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가 대구에서 열립니다.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A 대구 지역 곳곳에는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지치지 않고 일해 온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대구는 민관협력이 매우 활발한 곳입니다.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회가 만들어져 50명이 넘는 분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협의회에서 사회적경제 정책을 발굴·수립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인정받아 통합박람회 장소로 대구가 선택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Q 기초단위의 협의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네. 대구의 총 8개구군 중 7개구군에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사회적경제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사업체를 가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협의체를 이루고 있는 것인데요. 이 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논의해 장터·축제·음악회 등 의미 있는 지역사업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Q 기초단위의 협의체들이 지방소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까요?

A 일례로 ‘동구사회적경제협의회’를 들 수 있겠네요. ‘주민 모두가 강사’라는 콘셉트로 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경력단절여성이나 은퇴자를 강사로 육성해, 이 주민들이 다른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 밖에도 마을 텃밭과 마을 공동축제를 기획·운영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내 주민 스스로 만날 수 있는 연계 지점이 많아지고 서로 접속할 수 있는 판이 넓어질수록 지역이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Q 지방소멸의 문제가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대구는 어떤 상황인가요?

A 사실 대구는 소비 여력이 많은 도시입니다. 타 지역에서 소득을 가져와 대구에서 소비하는 일부자들이 꽤 모여 있죠. 대구의 문제는 청년 유출로 볼 수 있을 텐데요. 대구는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취약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적은 편입니다. 어떻게 하면 청년들로 하여금 지역에서 공부하고, 일터를 찾게 하고, 타 지역으로 간 청년들을 돌아오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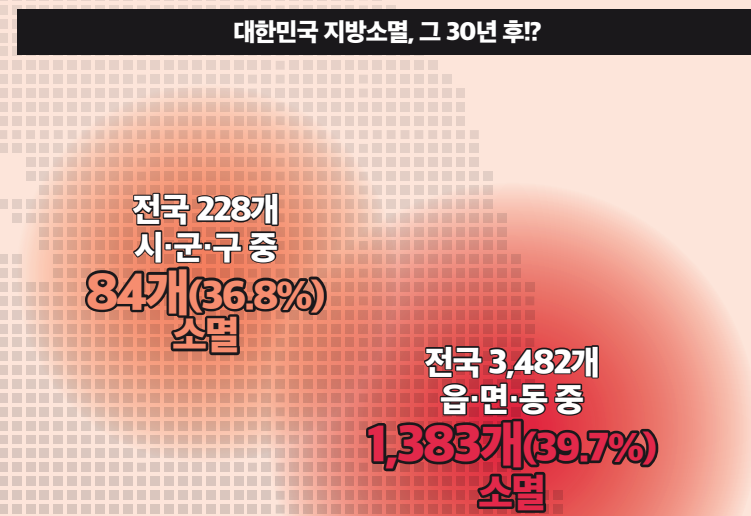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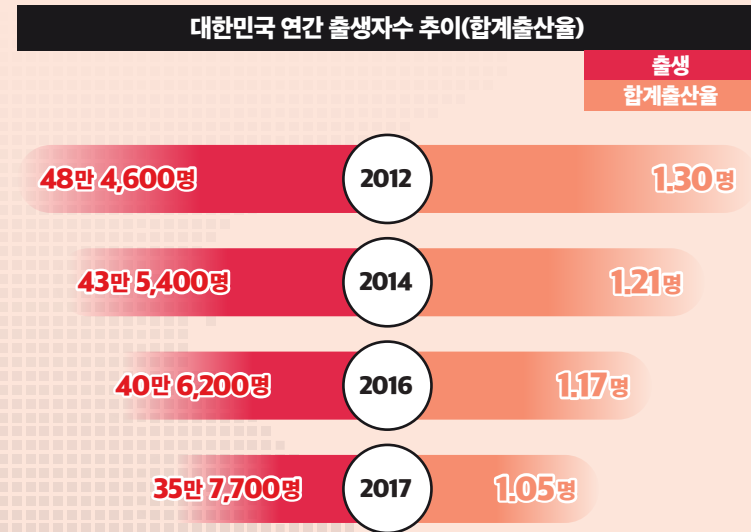
Q 이를 위해 커뮤니티와 경제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A 대구의 여러 기관들, 예를 들어 청년센터, 대구테크노파크 등과 연계해 청년 사업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경제의 ‘소셜리빙랩’, ‘히든캠퍼스’, ‘청년형 마을기업’ 등도 청년 사회적경제가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밖에 청년들을 위한 동아리 지원 사업 등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실행함으로써 청년들이 지역에 관심을 갖게끔 하도록 지속적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으로 푸는 지방소멸

‘지방소멸’이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왔다. 일본 이와테 현 지사, 중앙정부 총무대신 등을 지낸 마스다 히로야의 책 <지방소멸>에 뿌리를 둔 말이다. 인구통계를 바탕으로 한 그의 진단에 따르면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절반은 2040년 소멸한다.

한국 상황도 비슷하다. 연간출생자수와 합계출산율은 떨어지고 있고, 젊은 층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앞으로 30년 안에 전국 시·군 가운데 1/3 이상이 거주인구가 하나도 없는 인구소멸지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글 | 편집실



<자료 : 통계청, 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과

관련해 아베 정부는 2014년

‘지방창생법’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지방

에 살기 좋은 거주환경을 확보해 지속가능한

일본사회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와 지자

체가 수립한 종합전략에 따라 2016년부터 주요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정부기관의 지방 이전, 청년 및 출산·육아 지원 등의 시책은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한다. 하지만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미래 계획을 수립해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도 병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성의 과소지역 대책사업인 ‘작은 거점

만들기’ 사업을 눈여겨볼 수 있다. 2020년까지 ‘작은 거점(지역

재생거점)’을 전국에 1,000개소, 지역운영조직 3,000단

체를 형성할 계획인데, 지방창생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

다. 2015년 개정된 지역재생법은 작은 거점을 형성하

고 정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작은 거

점에는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집약되며, 농

지전용 허가과 개발 특례 등이 제공된다. 또한 지역재

생전략교부금을 활용해 지역재생사업을 진행하는데,

NPO법을 바탕으로 하는 일본 사회적경제 영역이 주요

지역재생추진법인으로 등록 및 활동하고 있다.

일례로 2009년 공식 설립된 NPO법인 사이하라(아마나시 현 우

에노하라 시)는 작은 거점 만들기 사업을 통해 지역의 복지 서비스

니즈를 파악한 뒤 지역 독거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통서비스

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일본농림수산성은 2015년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

을 발표하며 신규취농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고령

화와 인구 감소 등 지방소멸 대책의 성격을 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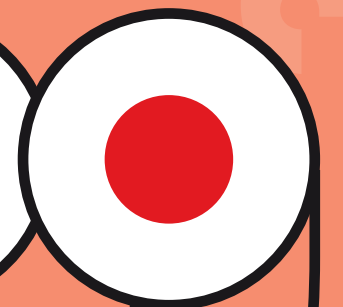
여기서도 NPO법인(크리에이트 히가시네, 미나미

아이즈 모리 네트워크 등)들이 관계단체로

나서 취농자 확대, 양육·주거 지원 등

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다.

협력과 연계
통해
지방창생



육아

상업

에너지

관광

작은 거점 형성
(생활서비스 유지 확보,
지역의 일자리·수입 확보)

농림
수산업

교통

이주
(전원회귀)

방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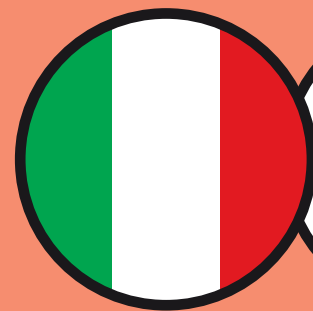
문화

의료

교육

JAPAN





청년이 행복한 지방 만들기

이탈리아 경제는 2011년 하반기부터 회복거렸다. 2014년부터는 청년실업률 관련 기록을 새로 썼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최대 희생양이 이탈리아 청년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다.

대응은 지자체별로 상이한 편이다. 그중 이탈리아 토스카나 주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이 '청년들에게 미래를 제공'하는 데 달려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청년 일자리정책을 펼쳐 눈길을 끈다. 이른바 '지오바니시(Giovani si) 프로젝트'다.

지오바니시 프로젝트는 국가, 지역, 유럽연합(EU) 차원에서 인턴십, 주거, 시민서비스, 창업, 취업, 교육훈련의 6개 영역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하는 데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지방을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면서 청년층의 외부 이탈을 막고, 지역 내 인적자원으로 성장시키는 전략이다. 연간 약 6억9,000만 유로를 투입해 10만여 명을 지원하는데 지역 내 기업, 공공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돼 인턴십 참여자의 경우 40% 이상이 취업에 성공하고 있다.

토스카나 주의 협동조합 조직도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토스카나 주 최대 규모의 협동조합 조직인 '유니콥 피렌체(Unicoop Firenze)'는 '토스카나 공연 협회'와 함께 'Under 30'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예술의 지방인 토스카나 주 청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즐기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한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18~30세 청년들은 토스카나 주의 총 17개 전통극장에서 열리는 모든 공연을 단 5유로를 지불하면 관람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오바니시 프로젝트와 Under 30 프로젝트는 청년층을 겨냥해 인터넷, 모바일 플랫폼을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이용 창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오바니시 프로젝트

ITALY

창업

인턴십

주거

취업

교육
훈련

시민
서비스

영국 북부 스코틀랜드 지역은 과거 철강, 조선, 제조업 등으로 발달했다. 하지만 이들 주요 산업의 중심지가 동아시아로 옮겨지면서 경기 침체가 찾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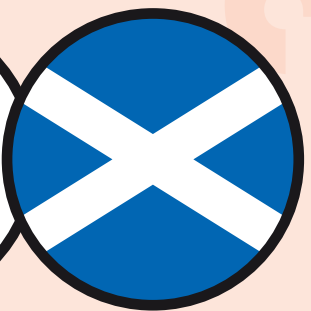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가 떠올랐으며,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발달했다. 스코틀랜드 행정부는 사회적 경제 활동이 늘어나도록 중간지원조직들을 적극 지원했다. 또한 보건·환경·고용 등의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정부 조달 과정에 사회적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역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했다.

지방소멸의 관점에서는 북부 하이랜드 및 섬 지역의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사례를 살필 수 있다. 이곳에는 스코틀랜드 인구의 9%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데, 스코틀랜드 사회적기업의 22%가 밀집해 있다.

적은 인구, 척박한 토양, 산과 바다로 단절된 지형 등은 주택공급, 고용, 여행 등에 불리하게 작용했고, 주요 인프라 발달도 억제했다. 이를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안에 강한 유대감이 형성됐으며 공동의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 모델이 등장하게 됐다.

특히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 교통과 같은 필수 인프라를 공동으로 구매, 소유, 이용, 관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 모델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스코틀랜드 본토 글래스고와 스카이 섬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수단인 스카이페리는 지역사회가 공동 소유하는 형태로 구매돼 사회적기업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도 하이랜드 주요 지역의 마을 버스, 소매점, 병원 등도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기업 형태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공동체, 지방 사회적 기업의 주체로



전체
사회적기업 수
5,600개 이상

지방(시골)
사회적기업 비율
34%

지역공동체가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비율
70%



꼭 짚어 맛보는 달콤한 나의 도시

사회적기업 제품에 담긴 의미는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상품성과 적절한 조화를 이룰 때 더욱 깊숙이 전달된다. 여기 도심 속에서 꿀벌을 위한 양봉을 통해 도시재생과 양질의 꿀 상품 생산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이 있다. 상품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우수사례 ‘어반비즈서울’을 소개한다. 글 | 정보리, 사진제공 | 어반비즈서울



어반비즈서울



도시양봉, 그것이 궁금하다!

Q 왜 도시에서 벌을 키울까?

A 환경지표종인 꿀벌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건 자연생태계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꿀벌이 증가하면 꽃의 발화율이 높아져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곤충과 소형새가 도시로 다수 유입되어 도시 생태계가 회복됩니다. 더불어 도시양봉을 통해 생산되는 양봉부산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Q 도시에서 나온 꿀, 믿고 먹을 수 있을까?

A 꿀벌이 입에서 입으로 꽃꿀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꿀 속의 성분이 꿀벌의 효소와 섞여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깨끗한 꿀이 됩니다. 꿀벌이 필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어반비즈서울은 수확 후 한국양봉협회 시험검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꿀 성분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꿀을 판매합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도시양봉이 활성화된 유럽의 경우, 도시의 고온건조한 기후와 다양한 식물, 농약으로부터의 안전성 등을 도시양봉의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Q 혹시 사람을 위협하지는 않을까?

A 사람들의 인식과 달리 꿀벌은 사람을 무서워하며 먼저 덤비지 않습니다. 꿀벌은 한 번 벌침을 쏘면 죽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 벌집이나 꿀벌을 해치지 않는 한 함부로 쏘지 않습니다. 분봉이 생기면 새 벌집 터를 찾아 이동하는 벌 떼가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이때의 벌들은 뱃속에 꿀을 가득 저장해두기 때문에 배를 굽혀 벌침을 쏠 수 없습니다. 또한, 관련 교육을 받은 도시양봉가들이 분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관련 안내판을 도시양봉장에 설치하여 사람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어반비즈서울의 숙성 꿀 생산제품

어반비즈서울의 전 제품은 꿀벌이 겨울나기 할 양을 넉넉히 남겨두고 일 년에 딱 한 번 수확하는 '리미티드' 숙성 꿀로 만든다. 다양한 야생화에서 꿀벌이 직접 모은 꿀이기에 채밀 시기에 따라 향과 맛이 조금씩 다른 것이 특징이다.

어반비즈 허니슈

[사회적기업 협업상권]

- ▶ 어반비즈서울의 숙성 꿀 성분이 함유돼 피부노화방지와 항균, 보습에 효과적인 제품.
- ▶ 인공경화제, 방부제, 향료, 인공색소를 넣지 않고, 낮은 온도에서 1,000시간 이상 숙성시켜 천연성분이 살아있는 비누.

* '동구밭'은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친구가 되어 함께 키운 작물로 천연비누를 만드는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달콤한 나의 도시 세트

[지원사업 개발상권]

- ▶ 농약과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가열처리 없이 자연 상태 그대로 생산한 살아있는 꿀.
- ▶ 오로지 꿀벌의 날갯짓만으로 수분을 날려 45일 이상 숙성시킨 자연 숙성 꿀.
- ▶ 꿀벌이 만든 천연 벌집과 생꿀, 벌집 벽에 붙은 화분, 프로폴리스까지 섭취할 수 있는 벌집 꿀.

URBAN
BEES
SEOUL

어반비즈서울이 받은 상품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서비스

분야별 전문가와의 1:1 컨설팅 제공

해당 분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업 타당성 검토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 조언

스토리텔링 브로슈어 디자인 제작

기업 홍보는 물론 다른 상품 및 사업에도 확장하여 접목 가능한 디자인 콘셉트 개발

감각적인 네이밍, 상품 패키지 개발

객관적인 제품 분석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상품 개선방안 제시



Interview 어반비즈서울 박진 대표를 만나다

Q 지원사업을 통해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A 처음 지원사업에 출품했던 제품은 벌꿀로 만든 립밤이었습니다. 호텔 어메니티로 공급하려던 차에 지원사업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가와 1:1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컨설팅을 통해 코스메틱 제품은 여러 가지 허가와 인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생꿀 제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었습니다. 시중의 꿀 제품과 차별성을 주기 위해 네이밍 개발부터 제품 용량, 패키지 디자인, 스토리텔링까지 여러 방면에서 개선해주신 결과 지금의 '달콤한 나의 도시 세트'가 탄생하였습니다.

Q 지원사업 이후 컨설팅 내용을 어떻게 발전시켰나요?

A 진흥원에서 저희의 사회적 취지를 담은 '스토리텔링 브로슈어'를 제작해주셨습니다. 콘셉트부터 색감, 꿀이 똑똑 떨어지는 일러스트 등 브로슈어에 들어가는 다양한 요소를 만들어주셨는데요. 단순히 브로슈어로 활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차후 출시 제품에도 디자인 콘셉트를 계승, 적용하여 '어반비즈 허니슈' 제품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지원사업 담당자가 말하는 어반비즈서울

○ 판로지원팀 김보민 과장

모든 구성원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욕이 높고 추진력이 대단합니다. 그 열정이 저한테도 전해질 정도로 적극적이신데요. 무엇보다 나름의 자부심도 갖고 계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겸손하세요. 그래서 개선방안을 말씀드렸을 때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적용하려는 모습을 보고 매우 감명 깊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열정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조언도 받으시고, 무엇보다 사회적 취지를 살려 사업을 개선하신다면 더욱 변창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꿀벌과 함께 가꾸는 생태도시, 어반비즈서울

어반비즈서울은 도시양봉을 통해 사라져가는 꿀벌의 가치를 알리고 새로운 도시 문화를 만드는 사회적기업이다. 공공기관, 학교, 호텔 등의 옥상 공간을 이용해 도시에서 꿀벌을 키우고, 자연에서 얻은 꿀과 밀랍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만든다. 도시양봉에 관심이 있는 개인부터 기업, 학교까지 도시에서 꿀벌을 키우고 지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A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86 아인빌딩 9층

T 070-8767-8585

H urbanbeesseoul.com

여름, 내 피부를 지켜줘!

쏟아지는 자외선, 각종 미세 먼지, 높은 습도 탓에 고왔던 얼굴에 주름과 기미가 또 늘어간다. 이 계절, 흘러가는 세월만 야속해 하지 말고 조금의 수고를 기울여보자. 피부 속까지 맑게 해줄 제품들과 함께라면 불쾌지수 높았던 하루마저 상쾌하게 정리된다.

글 | 기시윤, 사진 | 박성희

K씨의 프로필

나이 42세
직업 출판편집자
얼굴 나이에 비해 동안이라는 소리를 가끔 들음
피부 피곤하거나 잠을 못 자면 다음 날 얼굴에서 티가 남 (ex. 푸석거림, 다크서클, 뾰루지)
피부관리 저녁 세안 후 유명 브랜드 수분크림을 듬뿍 바름 (하지만 야근하다 잠드는 경우가 종종 있어 세안을 거르는 날도 있음)

- 가격 3,000 (세안타월 소)
- 구입 네이버쇼핑 (에코 아프로 검색)

(주)엘리트프렌즈

(주)엘리트프렌즈는 친환경 사무용품 및 생활용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곳이다. 자체 브랜드 '에코 아프로'는 세안·목욕 타월을 취급하며 '친환경(eco-friendly) 앞으로(apro) 가자!'의 의미를 담고 있다. 타월은 화학 가공 없이 100% 나무 섬유로 만들어진다.

T 031-318-3157 H www.elitefriends.co.kr

오랜만에
각질제거

➔ 평소 습관

자기 전 세안할 때 폼클린징 제품을 활용한다. 아이라인, 아이셰도우 등 색조화장을 한 날에는 먼저 클린징오일로 얼굴에 남은 화장을 닦아낸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각질 제거를 위해 필링제품을 사용한다. 하지만 술을 많이 먹거나, 야근해 피곤한 날에는 세안을 못하고 잠들 때가 많다.

➔ 체험 후기

타월을 활용해 세안을 하는 데 거부감이 있었다. 각질뿐 아니라 갓 생성된 피부세포까지 밀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 하지만 전혀 따끔하지가 않았다. 모공 깊은 곳 노폐물과 피지, 각질만 씻겨나가는 기분이었다. 미세 플라스틱 필링제품은 이제 안녕! 에코 아프로 이제부터 너다!

- 가격 10,000 (1팩 5매입)
- 구입 자체 홈페이지 쇼핑물

유한회사 햇살나무

강원도 인제에서 채취한 식물추출물을 이용하여 천연화장품을 제조하는 곳. '햇살나무 자작나무 마스크팩'은 자작나무 추출물을 주원료로 하고 있으며, 자작나무 추출물에는 보습효과와 진정효과가 큰 항히스타민 성분의 후라보노 배당체가 함유돼 있다.

T 033-463-6662 H www.haessalcare.com



➔ 평소 습관

바쁘고 귀찮다보니 마스크팩을 자주하지는 못한다. 세안 후 스킨·로션을 비롯해 주름개선 아이크림, 피부보습 수분크림을 바르는 정도로 피부 관리를 하고 있다. 답답하고 끈적거리는 착용감도 마스크팩을 멀리하게 한 또 하나의 이유다. 유명 해외브랜드 마스크팩은 착용감은 좋으나 너무 비싸다.

➔ 체험 후기

포장재를 뜯는 순간, 산 속에서나 맡을 수 있는 향기가 새어났다. 자작나무 향인가 보다. 솔잎 향기와 비슷한데 꽤 상쾌한 기분을 줬다. 얼굴에 퍼 붙여 발랐는데 기포가 생기거나 끈적거리지 않았다. 20분 지나서 팩을 떼었는데 얼굴이 촉촉하고 뽀아졌다. 이 상쾌함과 촉촉함은 다음 날까지도 지속되었다. 아침 화장도 평소보다 한결 잘 받았다.

- 가격 25,000원 (1박스 30포)
- 구입 자체 홈페이지 쇼핑물

(주)에코맘의산골이유식

경남 산청·하동 등지에서 자연농법으로 지어진 농산물과 청정해역인 남해안에서 잡은 어류를 활용한 이유식을 제조·유통·판매하는 곳. 현재는 세대를 아우르는 먹거리 판매로 '초보맘'뿐 아니라 남녀노소의 인지도를 함께 높여가고 있다.

T 055-884-2625 H www.ecomommeal.co.kr



➔ 평소 습관

여름밤 갈증이 나면 얼음동동 띄운 콜라를 들이키곤 했다. 시원함은 잠시뿐이지만 톡 쏘는 그 목 넘김을 좋아해 꿀을 수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갈증은 더 깊어지고, 콜라를 많이 마신 다음 날 얼굴은 더욱 푸석해지는 것 같다. 나 이 탓이다 생각했는데, 콜라가 우리 몸의 전해질·수분 등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제 콜라 OUT!

➔ 체험 후기

배 97%, 도라지 2%, 초석잠 1%. 모두 국내산으로 화학첨가물은 전혀 첨가되지 않았다고 한다. 배의 비타민C에는 피부미용 효과가 있고, 아미노산은 갈증해소를 돕는다. 그야말로 피부 속까지 꿀 피부를 돕는 아이템. 불쾌지수 높은 여름날 밤, 냉장고에 시원하게 넣었다가 꺼내 마시면 하루 피로가 말끔히 씻길 것 같다.



**커피로
선택해주세요.
착한 일은
우리가 할게요!**

텀블러에 마시는 착한커피

커피는 기호식품이다. 품질이 일정 수준 이상 충족되지 못하면, 제아무리 의미가 좋아도 재구매로 이어지기 어렵다. 까다로운 커피 애호가들의 인정은 물론, 사회적기업 인증까지 당당히 획득한 '착한커피' 기업 세 곳을 소개한다.

글 | 정보리, 사진 | 박성희



착한커피의 짝꿍, 텀블러

‘착한커피’하면 자연스럽게 함께 떠오르는 아이템, 텀블러. 일회용 테이크아웃 컵이 보편화된 생활 속에서 서서히 잊히는 듯 했으나, 플라스틱 재활용 대란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카페 업계에서도 다시 환경마케팅에 눈을 돌리고, 정부도 환경규제 손질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도 이에 발맞춰 찬장 속 텀블러를 꺼내 드는 것은 어떨까. 보온 텀블러가 부담스럽다면, ‘리유저 블 텀블러’로 시작해보자. 생김새는 종이컵을 닮았지만 여러 번 씻어 쓸 수 있는 다회용 컵으로, 텀블러보다 가볍고 휴대가 편리해 사무실이나 가까운 카페를 오갈 때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가지고 있는 제품의 담수 용량을 알아두면 유용하다. 커피전문점의 보통 사이즈 용량은 약 350ml로 아이스커피의 얼음을 고려해 넉넉한 크기의 제품을 휴대하면 커피가 남는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 제품을 가방 속에 휴대하기 쉽도록, 부직포나 면으로 만든 전용 파우치도 함께 주는 제품도 있다. 텀블러가 처음이라면, 지금 소개하는 사회적기업에서 만든 텀블러로 시작해 보아도 좋겠다.





다름을 재능으로 커피지아

- www.coffeejia.com
- 070-8254-1910

‘집에서 만든 음식처럼 믿고 마실 수 있는 커피’를 모토로, 중국어로 집(家)을 의미하는 ‘지아’에서 이름을 따왔다. 커피지아에는 ‘초공사’라는 이색직업이 있다. 이는 ‘초능력 공 감별사’의 줄임말로, 꼭꼭 숨은 결점두(결함이 있는 생두)를 손수 숙아내는 발달 장애인 직원을 가리키는 말이다. 원두 한 알이 커피 맛을 좌우하기에 매우 중요한 핸드픽 작업을 ‘초공사’가 전담한다. 발달장애인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좋아하기에 집중하는 능력이 일반인보다 뛰어나다. 고품질의 커피를 생산하려는 고민이 발달장애인의 재능 계발로 이어진 셈이다. 맛있는 커피로 승부하여, 발달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커피지아의 사회적 미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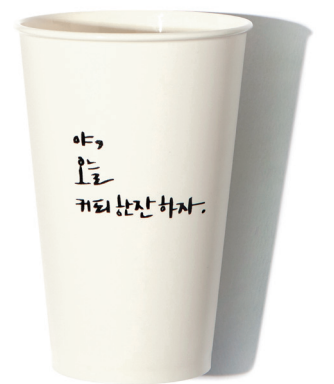
대부분 저개발국가에서 생산되는 커피생두는 복잡한 무역 절차 때문에 생산자들이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 이에 아름다운커피는 커피생두 매입 하한 가격제, 생산자 직거래, 생산지의 생태적 환경 보존 등의 원칙하에 공정무역을 실시하여 저개발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국내에 공정무역커피를 알린 1세대 사회적기업이다. 인스턴트 블랙커피와 파우치형 콜드브루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낮은 마진과 높은 품질로 공정무역에 대한 ‘편견 아닌 편견’을 깨고 있다. 더불어 공정무역커피 공동 브랜드 ‘아름다운커피 유니온’을 발족하며 공정무역제품의 일상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정무역커피 1세대 아름다운커피

- www.beautifulcoffee.org
- 02-743-1004



개인 카페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 기업 대상 커피기계 렌탈로 사업을 확장한 커피창고. 이제는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을 대상으로 매일 주문에 맞춰 로스팅한 고품질의 원두를 공급한다. 다양한 향미의 드립백과 신선한 콜드브루, 단정한 디자인의 리유저블 텀블러 등 다채로운 제품군만큼이나 조화로운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2013년 첫 북한이탈주민 채용을 시작으로,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장기 실직인 등 취약계층을 연이어 채용하다 보니 어느새 사회적기업이 되었다. 직원은 명확한 역할과 책임감으로 업무에 임하고 기업은 재교육 등 직원의 자기계발을 도와 경쟁이 치열한 원두커피 업계에서 빠른 성장을 일궈나가고 있다.



커피도 사람도 조화롭게 커피창고

- www.coffeecg.com
- 02-2226-4444

2018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사회적경제 내일을 열다!

‘2018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7월 13일 (금)~15일(일) 대구 EXCO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지금까지 각 부처 주도로 분산 개최되던 사회적경제 관련 행사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국 처음으로 민관이 공동으로 통합해 개최하는 것이 특징이다.

박람회는 사회적경제 유공자 포상과 민관이 함께 만들어갈 사회적경제의 비전을 공유하는 기념식으로 시작된다. 특별공연 <빅소셜데이>에서는 사회적경제를 스토리텔링한 뮤지컬, 춤, 노래 등이 펼쳐지며 ‘꿈꾸는씨어터’(1600-8325)를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네트워크 행사도 실시될 예정이다.

또 ‘사회적경제 기업관’, ‘정책홍보관’, ‘대구광역시관’ 등의 전시관을 구성해 일반에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비전을 알릴 예정이다. 이 밖에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킬 예정이다.



모의 클라우드펀딩, ‘사회적기업, 너의 가치를 보여줘’ 실시

진흥원은 6월 28일(목)부터 7월 4일(수)까지 클라우드펀딩 플랫폼 ‘오마이컴퍼니(www.ohmycompany.com)’를 통해 ‘사회적기업, 너의 가치를 보여줘’라는 사회적기업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사회적기업 모의 펀딩에 참여한 사람에게 사회적기업의 다양한 제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로 ‘펀딩 기업 선택 이유 댓글을 작성한 참여자’, ‘인스타그램 리그램 참여자’, ‘페이스북 공유 이벤트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홍보캠페인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다양한 사회적가치를 알리고자 마련됐다.



포용 성장의 동력, 사회적경제 ‘2018 사회적경제 국제포럼’ 개최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진흥원이 주관하는 ‘2018 사회적경제 국제포럼’이 6월 15일(금),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올해 국제포럼의 주제는 ‘포용 성장의 동력, 사회적경제’로, UN사회개발연구소 폴 래드 소장의 기조연설로 시작했다.

폴 래드 소장은 “기존 성장모델이 소득 불평등의 심화, 불안정한 일자리,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야기했고 미래세대의 기회를 빼앗는다는 점에서 포용적이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지적하며 “유엔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제 2030’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포용 성장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성장 전략 등에 대한 다양한 강연과 국내외 사례가 소개됐다.

‘사회적경제의 미래비즈니스 전략-사회적경제의 강점과 유망분야’로 진행된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최근 사회적경제 수요가 많고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도시재생, 에너지, 사회적금융 분야의 국내외 청년 활동가·사회적경제기업가 등이 연사로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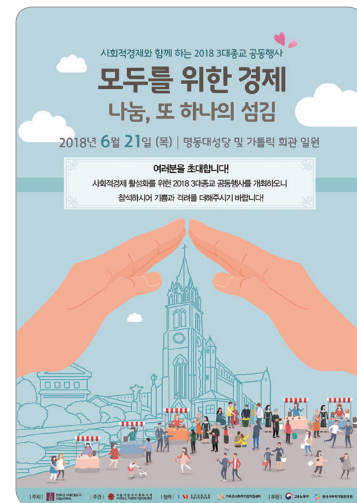


3대 종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뭉치다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2018 3대종교 공동행사’가 6월 21일(목) 명동대성당에서 개최됐다. 2015년 ‘착한소비 한마당’, 2016년 ‘자비와 나눔마당’, 2017년 ‘이웃사랑 나눔실천’에 이어 4회를 맞은 이번 3대종교 공동행사는 ‘모두를 위한 경제 『나눔, 또 하나의 섬김』’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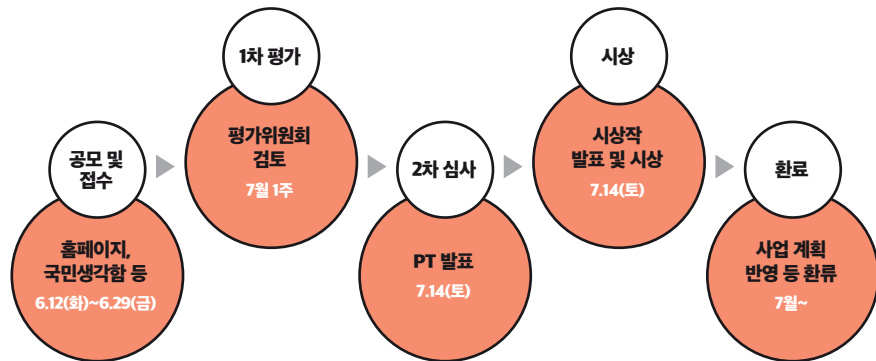
기념식에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장 유영희 목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지현스님 등 종교계 주요 인사와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3대 종교는 ‘사회적가치 확산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교계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불평등과 갈등 해소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나갈 것을 선언했다.

행사에는 총 35개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했으며, 각 부스에는 기업소개·생산물 판매·시식 및 다양한 체험활동이 진행됐다.



‘사회적기업 열린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진흥원은 6월 12일(화)~29일(금) ‘사회적기업 열린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이번 공모전은 사회적경제기업 인식 및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판로 개선·정부 정책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당면한 문제 해결 및 사회적 가치 창출 확대를 위한 혁신 아이디어라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했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는 1차 서면심사를 거쳐 총 8건을 선정하고 7월 13(금)~15(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 최종 수상작을 결정한다.



사회적기업 창업대회 2018 소셜벤처 경연대회 시작

‘2018년 소셜벤처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이 7월 9일(월)에 마감된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소셜벤처 경연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적기업 창업대회로 자리매김한 행사다. 그동안 ‘공부의 신’(대표 강성태), ‘시지온’(대표 김미균), ‘두손컴퍼니’(대표 박찬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스타 사회적기업가를 발굴한 바 있다. 올해 대회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분야(청소년, 대학생 부문)와 사회적기업 창업연계 분야(일반창업, 글로벌성장 부문)으로 구분하여 참가자를 모집하며, 3단계 심사(예선→권역대회→전국대회)를 통해서 우수 아이디어를 선별, 총 2억원 규모의 상금과 상장(국무총리상, 고용노동부장관상 등)을 수여한다.



소셜벤처 위크, 소셜벤처 성과를 확산!

진흥원은 5월 19일(토)~25(금)에 소셜벤처 경연대회 10주년 기념 ‘2018 소셜벤처 위크’를 개최했다. ‘소셜벤처 플리마켓’, ‘거북이마라톤’, ‘2018 사회적기업가 페스티벌’ 등이 열렸으며, 소셜벤처의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2018 사회적기업가 페스티벌에서 열린 2017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우수창업팀 시상식에서는 (주) 포올라이프와, 올리브유니온팀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추가 모집

진흥원은 5월 25일(금)~6월 18일(월)에 사회혁신을 이끌어갈 2018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을 추가 모집했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이란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 사회적 목적 실현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창업팀에게는 창업공간과 창업자금, 멘토링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또한 올해부터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특화분야를 전반적으로 확대하고, 창업지원기관을 신설하여 창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2011년 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7년간 약 2,700여개의 창업팀이 전국 곳곳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변화의 싹을 틔워왔다. 지원종료 이후에는 ‘H-온드림 오디션’, ‘We-Star 발굴 프로젝트’,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의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에 하고 싶은 말

<36.5> 지면을 채워 준 인터뷰이·소비자들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전하는 응원 및 당부의 메시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 곳곳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 사회적경제생태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글 | 편집실

인증유형이 다양화되면 사회적경제가 더욱 탄탄해질 거 같아요.



01 토닥토닥협동조합 **이영희** 대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면서 진흥원에게 많은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인증유형이 좀 더 다양화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저희 토닥토닥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는데, 일자리 창출형으로 규정짓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거든요. 인증유형이 다양화되고 체계화된다면, 사회적경제가 더욱 탄탄하게 형성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여러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할 테지만요. 물론 사회적기업 사례들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음에 따라, 진흥원 측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지점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문화예술단체가 보편적인 직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02 인디053 **이창원** 대표

인디053은 문화예술단체가 어떻게 일반적인 직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지, 이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데 미션을 둡니다. 문화예술기획자가 사회적 인식 속에서 일반적인 직업군으로 분류가 되고, 보편적인 직장이 되는 거죠. 제때 월급 나오고, 휴가도 가고, 근로기준법상 4대 보험이 보장되는 이런 일반적인 것이 지켜지는 것이죠. 소위 대안적인 삶을 살고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이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어요. 저는 이 미션의 결론을 사회적기업에서 찾았습니다. 사회적기업진흥원이 구심점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3 커뮤니티와 경제 **김재경** 소장

저희 커뮤니티와 경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비롯, 중앙정부의 정책을 현장 사회적기업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현장지원자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정책과 자금들이 필요한 곳에, 유용하게 쓰이도록 하는 일이지요. 따라서 진흥원과의 파트너십과 소통은 필수입니다. 앞으로도 진흥원과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해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들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금껏 그래왔듯 사회적경제생태계를 풍성히 하는 데 진흥원이 더욱 많은 힘을 쏟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판을 만들고, 넓히는 데 저희 또한 힘을 보태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이야기를 더욱 많이 들려주세요.



04 **K씨**

평소 윤리적 소비에 관심이 많아 사회적기업 제품뿐 아니라 젊은 창작자들이 진행하는 크라우드 펀딩에 자주 참여 하고 있습니다. 텀블벅이나 와디즈같은 플랫폼이 대표적인데 펀딩에 성공하는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고유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더군요. 제품이나 프로젝트 자체도 마음에 들지만 그들이 담고 있는 스토리에 끌려 펀딩에 참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을 더 좋은 곳으로 바뀌어가는 사회적기업가, 사회적기업 제품의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져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진흥원이 발굴과 전파에 힘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 ① 한 손으로 가볍게 주먹을 쥐고 새끼손가락을 핀다.
- ② 손등이 바깥으로 보이게 하고 새끼손가락을 턱에 두 번 댄다.

그렇습니다



- ① 손등을 바깥으로 하여 가볍게 두 주먹을 쥐고 엄지와 검지를 핀다.
- ② 엄지와 검지를 위로 향하게 하여 손가락을 강하게 두 번 맞붙인다.

멋집니다



- ① 검지를 펴서 코에 댔다가 천천히 구부렸다 피면서 밖으로 내민다.
- ② 버선코의 곡선미를 연상하며 손가락을 움직인다.

수고하셨습니다



- ① 오른손 주먹을 가볍게 친다.
- ② 주먹 친 오른손으로 왼 팔등을 두 번 두드린다.

<출처 :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작은 손짓이 전하는 큰 감동

당신의 작은 관심이 그 누군가에게는 큰 위안과 설렘이 된다는 사실. 이웃을 위한 작은 정성이 늘어갈수록 우리 모두 함께 배려 받는 일이 많아지기 마련이다. 글 | 기사윤

청각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01 바른 입모양

청각장애인들은 입모양을 보고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하곤 한다. 마주 보고 적당히 크고 분명하고 바른 입모양으로 말하는 게 좋다.

02 충분한 상황설명

이야기 도중 다른 상황(전화벨이나 초인종이 울리는 등)에 처한 경우, 이를 설명해준다.

03 때로는 필담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경우, 청각장애인이 대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필담으로 중간 중간 내용을 전해준다.

수화 콘텐츠 생산
사회적기업을 소개합니다



☎ 042-719-1004
🌐 www.facebook.com/wingsbooks

열린책장은 수어영상도서 출판, 수화TV채널 'SON TV' 운영뿐 아니라, 머그컵·팬시용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http://smartstore.naver.com/deafin/>에 방문하면 다양한 상품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열린책장이 자체 제작한 이모티콘 캐릭터를 활용해 만든 머그컵이다. 컵 한 면은 수어동작이, 다른 한 면은 동작이 뜻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판매수익금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도서 제작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독자 BOX

독자 여러분의 의견은 더욱 알찬 <36.5>을 만드는 데 소중한 토대가 됩니다. <36.5>을 읽은 후의 느낌과 생각을 편집실로 보내주세요. ' <36.5>을 읽고'라는 말머리와 함께 아래 문항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모두 답하셔도 좋고, 몇 가지 문항만 답하셔도 좋습니다. 그 밖에 하시고 싶은 말씀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보내실 곳 kosea@ikosea.or.kr

01 이번 호를 읽고 기억에 남는 내용이나 흥미로운 점을 말씀해주세요.

02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Always with you!에 소개하고 싶은 사회적기업이 있으신가요?

03 <K씨의 하루>에 참여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간략한 본인 소개와 함께 신청해주세요.

04 <36.5>가 다뤄졌으면 하는 소식이나 내용이 있으시다면요?

2018 사회적경제 박람회 IN DAEGU

SOCIAL
ECONOMY
FAIR

07.13.금-15.일
대구EXCO
10:00-18:00 (일 -16:00)

사회적경제 내일을 열다



메인프로그램

기념식
사회적경제인 네트워크행사
특별공연 <빅소셜데이>



전시관

사회적경제 기업관
정책홍보관
대구광역시관



부대행사

학술행사
정책설명회
경진대회
사회적경제조직
지원프로그램
문화예술 공연무대



테마체험

어린이 스마트폰 촬영대회
사회적경제박람회 x 대구투어
청년소셜벤처 토크콘서트
휴-식(休食)존 | 어린이플레이존
청소년 액션러닝존 | 청년 빌드존
현장이벤트

주최 기획재정부 | 교육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부 |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 국토교통부 | 중소벤처기업부 | 금융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대구광역시 |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한국마을기업협회 | 한국자활기업협회 | 전국협동조합협의회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 한국협동조합협의회
주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중앙자활센터 | 한국농어촌공사 |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전등록시(-7.12까지) 박람회 쿠폰
5,000원 상당 제공 (선착순 입장 500명/일)

2018사회적경제박람회 검색

www.2018socialfair.net
053-218-2053

사회적기업 매거진

(1329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한화생명빌딩 6~8층

T. 031-697-7700 **F.** 031-697-7853 **H.** www.socialenterprise.or.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97 72465 870009
ISSN 2465-8707